

朝鮮王朝後期の宮祿研究

許 東 華

一、序 言

宮中에서 소용되었던 각종 物品을 보관한 祿을 일러 宮祿라고 定義해 둔다. 여기서 고찰하는 宮祿는 그 時期를 朝鮮王朝 後期로 한정하게 되는데 이는 宮祿에 관한 研究資料인 實物과 文獻記錄이 희소하기는 하나 그런대로 이 時期의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宮祿 研究의 意義는 첫째 宮中이란 特殊社會의 生活樣式 내지 生活文化의 一面을 祿라는 單一品目을 통하여 살펴보는 데 있고, 둘째로는 庶民用的 民祿를 포함한 傳統祿 全般에 걸친 研究의 一環으로서 位置를 가늠해 두는데 있다.

宮祿 研究의 難點을 一次로 祿의 材料인 織物의 屬性—耐久性이 弱한—으로 인해 保存期間에 制約이 따라 오래된 遺品을 접할 기회가 쉽지 않고 또한 文獻資料에 보이는 祿 역시 싸두는 物品에 종속되어 體系없이 記錄되어 宮祿 內容은 限定된 範圍內에서 考究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宮祿 研究는 이에 관한 先例도 없을 뿐 아니라 資料의 未備로 인해 현재로서는 試論的 段階를 벗어나기 어렵다.

宮祿 研究에 成果를 期하기 위해 筆者는 나름대로 각종 文獻資料를 調査한 結果 몇몇 文獻에 祿에 관한 記錄이 散見되나 資料的 價置로서는 未洽하다는 判斷을 했고 다만 英祖代에 刊行된 尙方定例 三冊에 列擧해 있는 각종 物品名에 종속되어 多種의 祿가 記載돼 있음을 찾아냈다.

그리고 實物資料는 筆者가 入手한 것과 昌德宮 遺物館에 보존돼 있는 多量의 祿를 調査對象으로 했음을 밝혀 둔다.

二、文獻資料(尙方定例)

一、尙方定例의 編制

英祖 二八年(一七五二年)에 刊行된 《尙方定例》 三冊(恒例 一卷, 別例 上下 各一卷)은 王族一家에 소용되는 옷(衣襟)를 비롯한 각종 日用品과 기타 儀物을 마련하여 調達하는 衙門인 尙衣院에서 펴냈다.

이 책의 編制를 보면 먼저 王을 위시하여 王族一家를 王大妃, 王妃, 王世子, 世子嬪 등으로 그 序列을 구분지어 자기 一年間에 소용되는 物品의 進上時期를 誕日과 節日—正朝, 重三, 端午, 秋夕, 冬至, 每朔, 間朔, 春秋兩等, 年例 등—으로 규정하여 進上物品의 細目을 기재해 놓았다. 그리고 物品의 造製法(准折式)과 衣次의 染色法(入染式)을 실었다. (恒例)

다음에 進上되는 物品中 傷하거나 汚染된 것을 改造 또는 新造하는데 쓰이는 각종 材料와 王이 傳敎하여 隨時로 造製되는 物品名과 여기에 필요한 材料를 記載해 놓았다(別例 上).

이 밤에 陸行時, 親臨閣武時, 親幸北韓時, 進宴時, 世子宮冠禮時 등의 宮中行事時에 所用되었던 物品單子와 「國婚定例」를 收錄했다(別例 下).

《尙方定例》 三冊의 內容을 要約하면 王族一家에 所用되는 衣襟, 衣次 및 기타 物品을 詳해해서 記載해 놓은 物品細目書인 것이다.

二、物品의 保管

《尙方定例》에 記載된 각종 物品은 대개 祿(尙方定例)에서는 「袂」으로 表記돼 있음) 또는 楮注紙 및 帛 등에 보관해 두거나 이것을 다시

각종 家、函、閣 등에 넣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尙方定例」의 原文中 一部〔大殿法服條〕를 引用하여 이 책의 記事體裁 및 物品 內譯、그리고 物品의 보관、특히 袪의 用途에 관한 具體的인 事例를 알아 본다.

尙方定例總目(全文、傍點筆者)

大殿法服 奉安于本院冕服閣

平天冠 白玉梁。黠纘珠。簪。旒五色珠

以裏磻紅鼎袖參幅襦袂安于倭朱紅漆家。

冕服 綬。大帶。青組。五色多繪。珮玉。方心

裏以磻紅鼎袖肆幅單袂安于倭朱紅漆閣。

赤襪

赤寫 以上裏以磻紅鼎袖參幅單袂安于冕服閣下層舌楯

白玉圭 裏以大紅廣的甲家安于倭朱紅漆舌楯

遠遊冠 五色珠。簪

裏以磻紅鼎袖參幅襦袂安于倭朱紅漆家。

絳紗袍 綬。大帶。青組。五色多繪。珮玉。

裏以磻紅鼎袖肆幅單袂安于倭朱紅漆閣

赤襪

赤寫 以上裏以磻紅鼎袖參幅單袂安于絳紗袍閣下層舌楯

如左과 같이 大殿法服條에 記載된 品目과 그 보관법을 附言해서 살펴

보면、平天冠과 遠遊冠 등의 冠類는 그 부속장식물과 함께 磻紅鼎袖 三

幅 襦袂(숨보자기)에 싸서 倭朱紅漆家에 보관해 두었고、冕服과 絳紗袍

등의 衣襟類는 磻紅鼎袖 四幅 單袂(숨보자기)에 싸서 역시 倭朱紅漆家

(閣)에 보관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赤襪과 赤寫은 각기 두 벌(冕服用과 絳紗袍用)인데 각기 磻紅 鼎袖 三幅 單袂으로 싸서 한 벌은 冕服閣 下層 舌楯에、다른 한 벌은 絳

紗袍閣 下層 舌楯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다음에 參考로 〈尙方定例〉恒例 大殿 誕日進上條에 記載된 品目과 이 所用되는 袪 및 紙、帛、函類를 알아 본다.

1、毛羅翼善冠 一部

磻紅鼎袖 三幅 襦袂 하나로 싸서 磻朱紅常函에 넣어 둔다.

2、馬尼綱巾 一部

磻紅鼎袖 一幅 單袂으로 싸둔다.

3、衣襟 및 衣次

① 襦加文刺一次 紫的吐袖 一疋

內拱〔안간〕磻紅鼎袖 一疋

② 襦帖裏 一次 草綠吐袖 一疋

內拱 磻紅鼎袖 一疋

③ 襦帖裏 一次 大紅綿布 一疋

內拱 磻紅鼎袖 一疋

④ 襦裏肚 一次 白吐袖 一疋

內拱 白鼎袖 一疋

⑤ 衫兒 一次 白鼎袖 一疋

⑥ 袂把持 一次 白吐袖 一疋

內拱 苔並白鼎袖 二疋

以上은 磻紅鼎袖 四幅 單袂 하나로 싸서 磻朱紅大常函에 넣어 둔다.

4、縫作 各色絲 九錢 三分(大紅絲、草綠絲、紫的絲、白絲 各等分)

5、袖絲 七錢 二分

以上은 楮注紙 一張에 싸둔다.

6、中綿子 五斤 一五兩

白正布(一〇尺) 帛에 넣어 둔다.

7、黑鹿子皮靴 白羊毛精具 一部

磻紅鼎袖 三幅 單袂 하나로 싸서 磻朱紅常函에 넣어 둔다.

8、黑熊皮靴鞋 一部

磻紅鼎紬 二幅 單袂 하나로 싸서 磻朱紅常函에 넣어 둔다.

이상의 物目中 各色絲와 紬絲 및 中綿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모두 二幅에서 四幅 크기의 磻紅鼎紬祿에 싸서 磻朱紅(大)常函에 보관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三、物品의 目錄

祿에 싸 두었던 각종 宮中用 物品의 目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一、冠 冕、巾、二、衣櫛。衣次 三、襪。烏。鞋。靴 四、藥櫃。香櫃 五、 각종 儀具 六、國婚時에 사용되었던 각종 禮物 등으로 大別해 볼 수 있다.

一、冠、冕、巾類

平天冠、遠遊冠、毛羅翼善冠、馬尼綱巾、馬尾頭冕、青綃笠、毛羅紗帽、軟頭巾

二、衣櫛類

冕服、絳紗袍、加文刺、帖裏、裏肚、衫兒、袂把持(王、王世子用)

串衣、赤了、衫兒、裏衣(王大妃、王妃、世子嬪用)

以上の 衣櫛는 계절에 따라 춤을 두거나 또는 겹(袂)、홀(單)으로 지었다.

三、衣次類

① 紬類 一紫的吐紬、草綠吐紬、白吐紬、白鼎紬、大紅吐紬、間色吐紬、柳青吐紬、磻紅鼎紬 ② 布類 一 大紅綿布、白苧布、白鼎布

四、襪、烏、靴、鞋

赤烏、赤襪、黑鹿子皮靴、黑斜皮靴、黑熊皮鞞鞋(王、王世子用)

黑熊皮溫鞋、白唐皮鞋、白熊皮皮結花溫鞋(王大妃、王妃、世子嬪用)

五、櫃

倭朱紅漆臘藥櫃、倭朱紅漆芙蓉香櫃、黑漆臘藥櫃

六、褥

沐浴平床所排褥、半染布褥、永寧殿橫內褥

七、函類

(倭朱紅漆)函、衣櫛函、命服函(黑漆)衣櫛函、納采函、復書函、中支

架函、納弊函、衣函

八、銀具類

銀鉢里蓋具、銀碗蓋具、銀匙貼蓋具、銀匙、銀筋、銀周鉢蓋具

九、儀物類

几、拾、筒箇、屏風、座子、瓢子、禮衫等

四、幅數別 內譯

一、《尙方定例》에記載돼 있는 祿는 一幅에서 八幅 크기까지 있는데 싸두는 物品의 종류에 따라 祿의 幅數、形態、材料(織物)가 明記돼 있다. 다음에 幅數別로 祿를 분류하여 物品名、이를 싸두는 祿의 형태、祿의 件數、그리고 祿의 織物 材料、이같은 순서로 그 內譯을 정리해 보았다.

一 幅 祿

一 幅 祿에는 馬尾綱巾과 國婚時의 別宮器皿에 속한 銀匙와 銀筋을 싸 두었다.

馬尾綱巾 單祿 六件 磻紅鼎紬

銀筋、銀匙 襦祿 一件 紫的紬

銀筋、銀匙 襦祿 一件 紅紬

二 幅 祿

二 幅 祿에는 男女用的 各種 鞋類 및 銀具類를 싸 두었다.

一、鞋類

黑熊皮鞞鞋 單祿 一四件 磻紅鼎紬

白唐皮鞋 單祿 五件 磻紅鼎紬

黑熊皮溫鞋 單祿 一三件 磻紅鼎紬

黑熊皮結花溫鞋 單襪 一〇件 礮紅鼎絨
紫的鄉織溫鞋 單襪 二件 礮紅鼎絨

二、銀具類

銀周鉢蓋具 袂襪 一〇件 紅絨綿布
銀鉢里蓋具 袂襪 二件 紅絨綿布
銀匙貼蓋具 袂襪 二件 紅絨綿布
銀碗蓋具 袂襪 一件 紅絨綿布

三幅襪

三幅襪에는 王과 王世子の 法服用時에 所用되는 平天冠, 遠遊冠 등 과 赤襪, 赤寫을 싸두었고, 이밖에 靴, 足巾(버선)用白正布, 鏡臺, 函類, 帽類 등을 싸두었다.

平天冠 襪襪 二件 礮紅鼎絨
遠遊冠 襪襪 二件 礮紅鼎絨
毛羅翼善冠 襪襪 二件 礮紅鼎絨
空頂責 襪襪 一件 礮紅鼎絨
毛羅紗帽 單襪 一件 紅絨
毛羅帽 袂襪 一件 藍絨
幘頭 袂襪 一件 紅絨
赤襪, 赤寫 單襪 四件 礮紅鼎絨
黑鹿子皮靴白羊毛精具 單襪 七件 礮紅鼎絨
黑斜皮靴白唐皮涼精具 單襪 三件 礮紅鼎絨
足巾次白正布(二疋五尺) 單襪 六件
玉色方紗袖腰帶 單襪 一件 礮紅鼎絨
青衿服 單襪 一件 礮紅鼎絨
單 單襪 一件 礮紅鼎絨
黑漆函 單襪 一件 紅絨
倭朱紅漆命服函 袂襪 一件 紅絨(內裏 三幅)

倭朱紅漆函 單襪 一件 紅絨(外裏 六幅)
黑漆教文中函 袂襪 一件 紅絨
唐朱紅漆教文中函 單襪 二件 紅絨(內裏 三幅)
唐朱紅漆教文中函 袂襪 一件 紅絨(內裏 三幅)
唐朱紅漆教文中函 單襪 一件 紅絨(外裏 六幅)

香杯銀長臺 袂襪 一件 紅絨綿布
山柚子鏡臺 單襪 一件 紅絨
倭朱紅漆鏡臺 單襪 一件 紅絨

四幅襪

四幅襪에는 각종 衣襪(옷)에 소용되는 衣次(옷감)와 櫃, 筒箇, 褥 등 을 싸두었다.

冕服 單襪 二件 礮紅鼎絨
絳紗袍 單襪 二件 礮紅鼎絨
衣次 單襪 三〇件 礮紅鼎絨
(衣次 單襪에는 각종 옷에 소용되는 길감과 안감을 싸두었다.)
各色 繡絲(二五斤) 單襪 一件(內裏 楮注紙 二張)
(外裏 礮紅鼎絨)

馬尾頭冕 單襪 二件 紅絨
馬尾頭冕 襪襪 一件 礮紅鼎絨
倭朱紅漆臘藥櫃, 單襪 三件 礮紅鼎絨
倭朱紅漆芙蓉香櫃 單襪 一件 礮紅鼎絨
黑漆臘藥櫃 單襪 三件 礮紅鼎絨
青斜皮體筒箇 單襪 一件 礮紅鼎絨
擔筒箇 單襪 一件 礮紅鼎絨
官案櫃 單保 一件 礮紅鼎絨
半染布褥 單襪 一件 礮紅鼎絨

沐浴平床所排褥 單襪 一件 礮紅鼎紬

半染布座子 單襪 一件 礮紅鼎紬

青綃金都多益粧笠 單襪 一件 礮紅鼎紬

影幀畫本 單襪 一件 礮紅鼎紬

黑斜皮靴白羊毛精具 單襪 三件 紅紬

倭紬紅漆櫃鏡臺 單襪 一件 紅紬

青綃(一尺五寸)、青綃笠 袂襪 一件 紅紬(內)
單襪 一件 紅紬(外)

青綃笠 袂襪 一件 紅紬(內裏 四幅)

單襪 一件 紅紬(外裏 三幅)

黑斜皮靴白羊毛精具 單襪 一件 紅紬

烟鹿皮靴白羊毛精具 單襪 一件 紅紬

五幅襪

五幅襪에는 주로 각종 儀物로 사용되었던 物品을 싸두었다.

几、甲襪 一件 礮紅鼎紬

大威之朴

軟 朴 單襪 一件 礮紅鼎紬

梧桐瓢子

藍注五紬氎衫 單襪 一件 礮紅鼎紬

氎衫 單襪 一件 青綿布

永寧殿積內褥 單襪 一件 礮紅鼎紬

紫的吐紬褥 單襪 一件 紅紬

鶴頂帶 單襪 一件 礮紅鼎紬

六幅襪

六幅襪에는 國婚時의 納采、納徵、告期、納幣、同牢 등에 所用되는 각종 漆函類가 대부분인데 대개 函의 內部는 袂襪로、外部는 單襪로 싸

두었다.

函의 종류에는 衣襪函을 비롯해서 納采函、敎命函、復書函、命販函、納弊函 등이 있다.

櫃所覆 單襪 一件 紫的鼎紬

黑漆衣襪函 單襪 一件 礮紅鼎紬

倭朱紅漆衣襪函 單襪 四件 礮紅鼎紬

黑漆衣函 袂襪 二件 礮紅鼎紬(內)

單襪 二件 礮紅鼎紬(外)

黑漆敎命函 單襪 一件 紅紬

黑漆中支架函 袂襪 二件 紅紬(內)

單襪 二件 紅紬(外)

黑漆納采函 袂襪 二件 紅紬(內)

單襪 二件 紅紬(外)

黑漆復書函 袂襪 二件 紅紬(內)

單襪 二件 紅紬(外)

黑漆納弊函 袂襪 二件 紅紬(內)

單襪 二件 紅紬(外)

黑漆中支架函 袂襪 四件 紅紬(內)

單襪 四件 紅紬(外)

黑漆命服函襪 袂襪 二件 紅紬(內)

單襪 二件 紅紬(外)

七幅襪

七幅襪는 모두 六件이 記載되 있는 바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王의 節日進上中 年例 染藍次 內入條에 보면 白鼎紬 五十疋을 白正布

七幅 單襪에 싸서 礮朱紅常函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入耆社時 儀物條에는 五峯山屏風과 十貼書屏風을 각기 青綿布 七幅 甲襪로 싸두었고 王妃嘉禮時 大內進排에는 草綠鼎紬 襦袢 二件을

안(內)은 七幅 紅紬 單襟로 밖(外)은 七幅 白正布引紋 單襟로 싸두었다.世子宮 進排에는 紫的 吐紬 襦衿 一件과 大紅吐紬 襦衿 一件을 안(內)은 七幅 紅紬 單襟로 밖(外)은 七幅 白正布引紋 單襟로 싸두었다.

八幅襟

규격이 가장 큰 襟로 모두 四件이 記載되어 있다.

入者社時 儀物中 大紅按譜를 礮紅鼎紬 八幅 單襟로 싸두었고淑儀 嘉禮時에는 紅綿布袴 四件을 紅紬 八幅 單襟로 싸두었다.

그리고 世子宮 嘉禮時의 同牢에는 紅綿布袴 二件을 白正布引紋 八幅 單襟로 싸두었다. 끝으로 公主 嘉禮 衣服條에는 襦衿 四벌(次)과 草綠 紬 引尺五寸을 각기 안(內)은 紅紬 單襟로 밖(外)은 白正布引紋 單襟로 싸두었다.

五、幅數別 使用頻度

宮襟의 使用頻度を 幅數別(一幅의 규격은 약 三三cm의 正방형으로 추정)로 살펴보면 주로 옷감을 싸두었던 四幅襟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는 각종 漆函類에 사용되었던 六幅襟 및 鞋類와 銀具類의 二幅襟, 그리고 冠類를 비롯한 각종 器物을 싸두었던 三幅襟의 順位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一幅、五幅、七幅、襟는 一〇件 이내가 쓰여졌고 가장 큰 八幅襟는 四件만이 보인다.
幅數別 使用 頻度는 아래와 같다.

一幅襟	八件	五幅襟	七件
二幅襟	五三件	六幅襟	五一件
三幅襟	四四件	七幅襟	六件
四幅襟	六二件	八幅襟	四件

《尙方定例》에 記載되어 있는 襟의 累計는 二三五件에 달하고 있다.

六、種類別 使用頻度

宮襟는 襟를 만든 形式에 의해서 單襟(홀 보자기)、袂襟(겹 보자기)、襦襟(술 보자기)、甲襟(두비 보자기로 추정됨) 등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調査된 襟의 形式을 보면 單襟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袂襟 襦襟、甲襟의 順으로 쓰여졌는바 그 內譯은 다음과 같다.

單襟	一九一件	襦襟	一〇一件
袂襟	三一件	甲襟	三件

七、材料(織物)

宮襟를 만드는 데 쓰인 織物은 주로 鄉織이 쓰였는데 그중 礮紅鼎紬가 가장 많이 쓰였고 다음으로 紅紬가 쓰였다.

이 밖에 紅紬綿布、紅絹、靑綿布 白正布引紋、紫的紬、藍紬、紫的鼎紬、白正布 등이 소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襟의 件數에 따른 織物의 종류와 그 수량은 다음과 같다.	
礮紅鼎紬	一五九
白正布引紋	四
紅紬	五六
白正布	一
紅紬綿布	六
紫的鼎紬	一
紅絹	四
紫的紬	一
靑綿布	二
藍紬	一

八、色相

위의 表에서 알 수 있듯이 紅色 계열이 大宗을 이루고 있었고 드물게 紫的(紫朱)와 藍、靑、白色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襟의 色相이 紅色 위주인 사유는 國初부터 黃色을 中國 皇帝의 色이라하여 王 스스로 黃色을 피하고 紫色을 王色으로 삼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紫色은 王 專用의 色으로 규정되어 士大夫는 물론 일반 서민층에서의

사용을 嚴禁해 왔고 양반층에 허용되었던 紅色도 때때로 禁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祿의 色相에 얽힌 史話 한가지를 소개해 두고자 한다.

太宗 八年(서기 一四〇八年) 四월에 前司宰監 李震이 入京할 때에 그의 남자종이 黃色 祿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본 司憲府의 下吏인 金乙持가 祿을 빼앗으려하자 司尹 金稠가 이 모습을 보고 李震에게 가담했으나 오히려 金乙持에게 욕을 당했다.

이에 金稠는 金乙持가 上官을 모욕했다고 罰을 내릴것을 臺諫에 요청했다. 그러나 司憲府에서는 劄을 빚하고 李震이 黃色 祿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을 당했다고 上書하여 이들에게 罪줄 것을 청했다. 그 결과 李震은 平州로 金稠는 水原으로 付處되었고 金乙持는 朝官을 모욕했다고 해서 刑杖을 맞고 내쫓겼다.

이처럼 黃色 禁令이 祿에까지 飛火되어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을 빚어낸 것이다.

그리고 睿宗 元年(서기 一四六八年) 七월에는 庶人의 紅染衣와 紅染 祿을 禁한 劄을 내린 바 있다.

九、構成材料

『尙方定例』 恒例 准折式條에 單祿와 襦祿의 製作時에 所用되는 尺과 그 規格 및 기타 材料가 記載돼 있는 바 참고로 여기에 轉載해 둔다.

(原文에는 袱으로 表記돼 있음)

四幅 襦祿

每件 礮紅鼎紬 二二尺四寸、槩綿花 四兩、中綿子 二錢、木紅絲 七分

三幅 襦祿

每件 礮紅鼎紬 一二尺六寸、槩綿花 三兩、中綿子 一錢、木紅絲 五分

四幅 單祿

每件 礮紅鼎紬 一二尺二寸、木紅絲 四分。

三幅 單祿

每件 礮紅鼎紬 六尺三寸、木紅絲 三分。

二幅 單祿

每件 礮紅鼎紬 二尺八寸 木紅絲 二分。

一幅 單祿

每件 礮紅鼎紬 七寸、木紅絲 一分

그리고 『尙方定例』 別例 上 入者社時 儀物條에는 다음 四種의 祿名稱과 構成材料가 記載돼 있다.

① 寶內裏祿

大紅 雲紋 疋緞

② 影幘奉安祿

大紅 雲紋 疋緞 三幅。表 大紅 雲紋 疋緞。內拱 大紅 廣的。金錢紙。草綠 絨絲。縫作 大紅 眞絲。藍 雲紋 疋緞 三幅。表 藍 雲紋 疋緞。內拱 藍 廣的。金錢紙。草綠 絨絲。縫作 藍 眞絲

③ 櫃內鋪祿

草綠 雲紋 疋緞。內拱 藍 廣的。縫作 草綠 眞絲。藍 眞絲

④ 櫃外裏祿

表 大紅 吐紬。內拱 藍 方紗紬。槩搗鍊紙。縫作 大紅 眞絲。藍 眞絲。丹樞次象牙

三、記錄調查 《宮中撥記》

李朝末 高宗 一九年(一八八二年) 東宮(純宗) 婚禮時에 所用된 것으로 추정되는 祿에 관한 撥記가 전해지고 있는 바, 여기에 揭示돼 있는 祿를 조사해 보면 종류로는 「맞보」(솜보)와 「누비보」가 대부분이고 幅數는 一幅에서 七幅까지 보인다.

그리고 襟의 織物은 대부분 모시(苧布)와 무명(綿)이고 色相은 초록, 자주, 분홍, 갈매(鴉靑), 백색, 玉色 등 多色이 혼용되어 쓰여졌다.

撥記의 襟들 《尙方定例》의 것과 비교해보면, 먼저 襟의 表記가 「襟」에서 우리말 「보」로, 「幅」은 「福」으로 바뀌었고 襟의 數量單位인 「件」은 「竹」으로 表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襟의 종류 구별 역시 漢字表記에서 한글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襦襟」은 「맛보」로 表記되었다.

다음에 襟의 織物을 보면 《尙方定例》의 것은 土産의 明紬가 대부분인데 비해 「撥記」의 것은 모시와 무명이 많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色相 역시 前代의 것은 紅色 계열 위주인데 後代의 것은 各色이 다양하게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襟의 용도를 알아보면 겹보와 맛보는 婚事에 사용되는 禮物과 기타 물품을 싸두는데 사용되었고, 누비보는 床 또는 飮食物을 덮는데 쓰였다고 한다.

四、實物資料의 調査

一、明安宮 遺物(圖 1)

鴉靑雲紋緞襟(筆者 所藏)

이 襟은 李朝 一八代 顯宗(一六五九~一六七四)의 딸인 明安公主(一六六五~一六八七)가 一六八一년에 吳泰周에게 出嫁했을 당시 婚禮物을 싸서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襟의 형식은 三幅 袂襟이고 보감은 藍色 비단에 七寶紋과 雲紋을 織造했고 안감은 藍色 無紋 비단이다.

지금으로부터 三〇〇여년전의 織物상태와 襟의 實物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資料로 평가된다.

二、昌德宮 遺物館 所藏品

현재 昌德宮 遺物館에는 一〇〇여점의 각종 宮襟가 소장돼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李朝 後期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一幅 小襟에서 五幅 大襟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의 宮襟는 그 종류를 홀보(單襟), 겹보(袂襟), 누비襟, 油紙襟, 노리개襟, 唐彩紋襟 등으로 大別해 볼 수 있는 바 類型別로 묶어서 그 內容을 살펴본다.

一、홀보(單襟)

宮襟중 가장 큰 五幅襟도 대개 明紬 또는 麻布로 만들었다. 천의 色相은 대개 紫, 紅色이고 네 귀에 同一色의 끈을 매달았다.

이불, 요 등의 寢具類를 싸둔 것으로 추정되며 襟 중심에는 縱書로 한글 墨書銘이 적혀 있는 것도 있다(圖 2).

예를 들면 「무신하동중경년고간이뉴오독」이라 쓰여 있는 바, 이 글을 漢字로 옮기면 「戊申仲夏慈慶殿庫間二六五竹」으로 풀이된다.

즉 一九〇八년(戊申)陰 五월(仲夏) 慈慶殿 庫間에 보관해 둔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 二六五竹은 襟의 保管區分과 數를 말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정확한 것은 未決로 남는다.

〔註〕慈慶殿, 現 景福宮 所在, 一八六五年(高宗 二年)에 건립되었음, 火災로 인하여 一八七六年 再建〕

二、겹보(袂襟)

겹보는 대부분 方形을 이루고 있는데 一幅半짜리가 가장 많고 이밖에 一幅, 二幅, 二幅半 등도 더러 보인다.

겹보에는 宮中 嘉禮時에 사용되었던 각종 禮物를 싸두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 襟의 걸감과 안감은 靑紅, 또는 紅黃色 등으로 色相이 다르다.

대개 明紬로 만들어진 겹보는 끈이 없는 것(圖 3)과 끈이 달려 있는 것(圖 4)으로 구별된다.

끈이 없는 襟은 物品을 적당히 여미어 싸서 函 등속의 그릇 속에 넣어 둘 때 사용된 것으로 믿어지고, 끈이 달려 襟는 먼저 네 귀를 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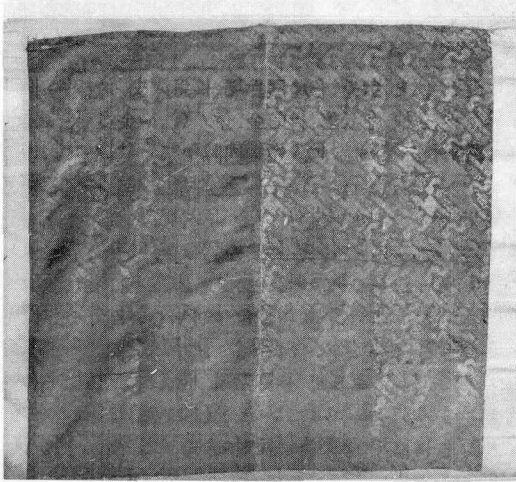


圖 1. 明安宮遺物,
鴉青雲紋緞襪 112×112cm, 16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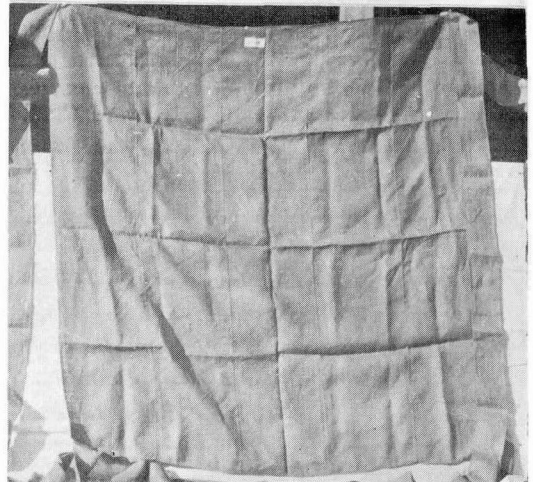


圖 2. 墨書名單襪
五幅, 紅色麻布, 紅色끈 네개

이 襪에 物品을 싸는 순서는 먼저 끈이 없는 두 귀를 여민 다음 안쪽에 달린 끈쪽으로 여민고 나머지 끈쪽으로 마무리 묶어 싸게 되어 있다.

6). 단 것도 보인다(圖 6). 또한 끈 대신 金錢紙와 삭모를 네귀에 매달아 장식하기도 했고(圖 5) 드물게 네 귀중 한 귀에 끈을 달고 다른 한 귀 안쪽에 끈을 단 것도 보인다(圖 6).

다음 끈을 마주 묶어서 싸는 것으로 보인다. 끈은 대개 긴 끈 한개를 襪 중심부에 부착시켜 끈 2개의 역할을 하도록 꾸몄다. 그리고 네 귀에 끈을 매단 것도 몇 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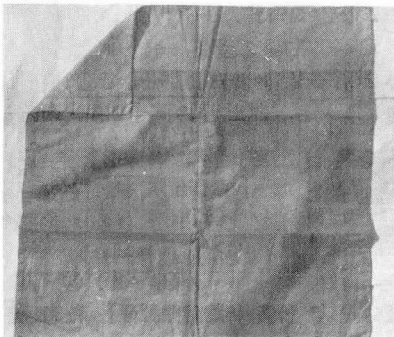


圖 3. 袂襪
二幅半, 겉감(紅色 明紬) 안감(青色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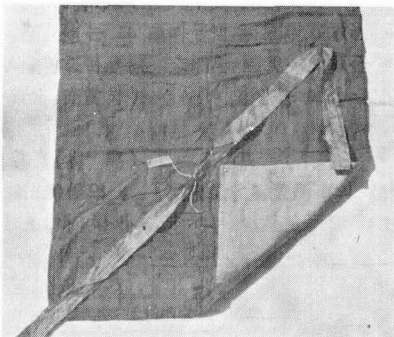


圖 4. 袂襪
一幅半, 겉감(紫色 明紬) 안감(青色 明紬) 끈(軟黃色 明紬)

三、油紙襪
油紙襪은 꾸밈새에 의해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데 편 의 상 끈의 有無에 의해서 有帶 油紙襪과 無帶 油紙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有帶 油紙襪(圖 7)
襪의 모양은 대개 方形으로 一幅半짜리가 많다.
襪의 꾸밈새는 누비와 동일하나 다만 안쪽에 油紙(기름을 먹인 韓紙)를 사용했고, 겉감 중심부에는 둥근 油紙를 대고 끈을 매달았다.
襪의 안팎에 油紙를 맨 것은 여기에 싸두는 물건이 습기가 있는 음식 물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과 주로 屋外에서 사용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안감의 油紙는 음식물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뒷감 중심부의 油紙는 屋外에서 운반하여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바닥의 습기는 물론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음식물의 국물이 油紙에 묻으면 쉽게 물로 씻어낼 수 있으나 천인 경우에는 자주 빨게 되는 번거러움이 생기고 또한 자주 운반하여 바닥에 내려 놓으면 더러움이 잘 끼게 되어 물로 씻어내기 쉽게 둥근 油紙를 부착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襟에 싸두는 음식물의 量은 一人分으로 추정되는바 이는襟의 크기가 일률적으로 一幅半 小形임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추측하건대 이襟의 실제용도는 宮内の 여러屋外 行事 및 雜事時에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ㄴ, 無帶 油紙襟(圖 8)

이襟은 대부분 長方形으로 그 규격은 다양해서 一幅×二幅、二幅×三幅(半)짜리가 섞여 있다.

누비襟 안쪽에는 油紙를 부착시켰고 뒷감은 黃, 紅, 白色 등의 명주를 사용했다. 이襟은 여러가지 음식물을 담는 木板을 덮는 것인데襟의 모양이 長方形인 것은 木板이 長方形이기 때문에 동일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襟 역시 廚房에서 行事 장소로 음식물을 木板에 담아 운반할 때 사용된 것으로 믿어진다.

四, 누비襟

襟을 누비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 꾸밈새에 의해 누비 접보와 누비油紙襟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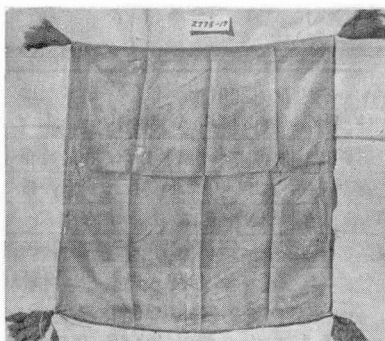


圖 5. 袂襟
51×50.7cm, 紅色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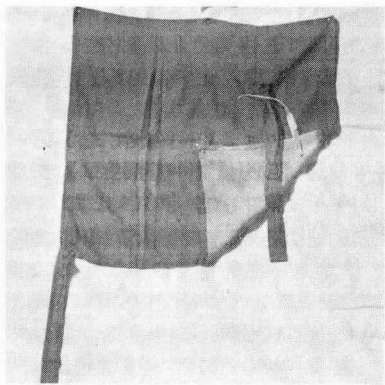


圖 6. 袂襟
一幅半, 緋緋(紫色明紬),
안감(靑色明紬) 끈(紫色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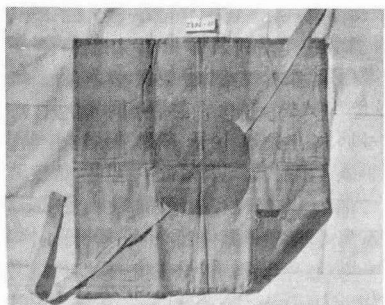


圖 7. 有帶油紙襟
一幅半, 緋緋(紅色明紬),
안감(油紙) 끈(黃色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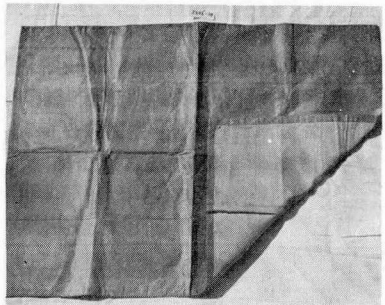


圖 8. 無帶油紙襟
二幅×二幅半, 緋緋(白色明紬) 안감(油紙)

누비 접보(圖 9)는 파손되기 쉬운 罽物類를 싸둔 것으로 믿어지고 누비油紙襟의 용도는 앞서 말한 油紙襟과 같은 데 앞의 것이 주로 여름철에 사용된 것에 비해 이것은 음식물의 保溫에 有意해야 하는 겨울철에 사용된 것으로 믿어진다(圖 10, 11)

五, 唐彩紋襟

唐彩紋襟은 삼베 바탕에 唐彩로 문양을 그려 장식한襟을 말한다. 2폭에서 5폭에 이르기까지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方形으로 꾸민 것이 많다.

5폭의 大形襟(圖 12)는 홍색 한가지로 문양을 그려 넣었는데 물唐彩로 엮게 칠했다. 이襟에는 이불, 요 등의 寢具類를 싸둔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小形襟(圖 13)은 진唐彩로 두텁게 각종 문양을 多色으로 그려 넣었는데 문양의 종류는 「太平長春」 「聖壽萬歲」 등의 文字紋과 牡丹, 菊花 등의 花紋, 鳳凰, 不老草 등과 마름모꼴의 機向紋이襟 全面을 빈틈없이 화려하게 채우고 있다. 이襟은 각종 櫃, 函 등속의 外部에 걸쳐 덮어서 장식한 듯하다.

이같이 장식 裱로 보는 근거는 물건을 싸게 되면 천에 채색된 두터운
 色料가 균열되어 부서지기 쉬워 실용성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전분
 畫工이 정성들여 그린 문양임을 미루어 실용성보다는 장식 또는 감상에
 목적을 두고 제작된 것 같다.

그리고 小形 裱의 遺品중 물건을 싸서 묶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六、三作노리개(圖 14·15)

노리개 裱는 대개 一幅으로 꾸며져 있는데 結감은 花紋 등이 織造된
 桃榴緞을, 안감은 대개 明紬를 사용했다.

結감과 안감의 色相은 紅, 黃色 등으로 구분돼 있고 한 귀에는 길고
 짧은 끈 二개가 달려 있다.

裱의 네 귀 중 한 귀에만 끈을 매단 것은 노리개를 쌀 때 먼저 세 귀
 로 여민 다음 긴 끈으로 돌려 짧은 끈과 마주 묶는다.

이 裱의 특징은 嘉禮時에 마련하는 노리개 이름을 銘記하여 明示된
 노리개만 싸두는 單一用途라는데 있다. 이는 끈이 달린 모서리 부분에
 裱에 싸두는 三作노리개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 둔 것으로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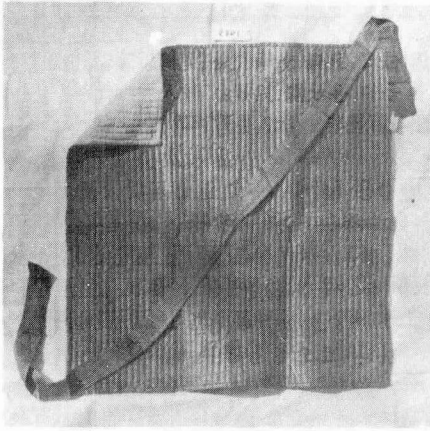


圖 9. 누비 裱 裱
 二幅, 結감(綠色 明紬) 끈(綠色 明紬)
 안감(靑色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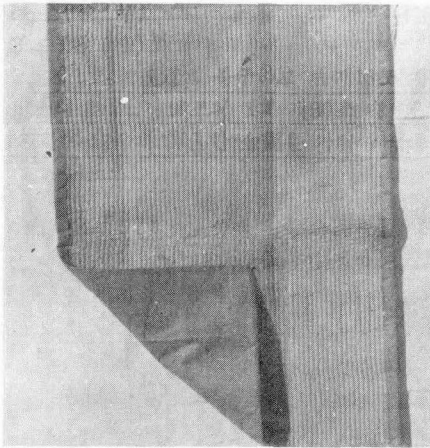


圖 10. 無帶 누비 緞 油紙 裱
 二幅×二幅半, 結감(黃色 明紬) 안감(油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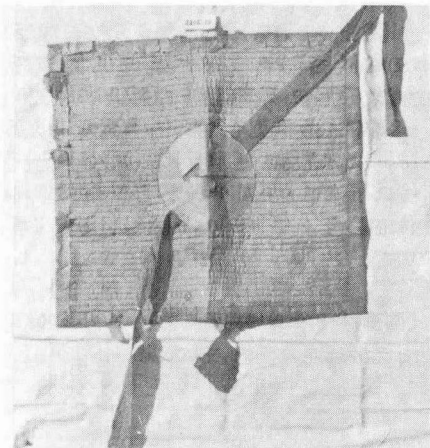


圖 11. 有帶 누비 油紙 裱
 一幅半, 結감(紅色 明紬)
 끈(軟藍色) 안감(油紙)

한가지 예를 들면 縱書로 「산호미송, 옥덜일땡, 공작석피」가 쓰여 있
 는바 이를 漢字로 풀이하면 三作노리개 個個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산호미송(珊瑚梅松) 梅花와 소나무 모양을 珊瑚로 조각한 노리개
 옥덜일땡(玉蝶一雙) 玉으로 만든 한쌍의 나비노리개(上下로 배열돼
 있음)

공작석피(孔雀石佩) 孔雀石(파란빛이 도는 돌)으로 만든 노리개.

五、結 言

序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 글은 한정된 자료에 의거해서 宮 裱
 내용의 一面에 접근해 본 것이다.

비록 斷面的인 것이나 宮 裱의 특징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上상의로 많은 裱가 쓰여졌는 바 이는 물품을 소중한게 다루는
 의도와 병행해서 宮中에서 통용되었던 規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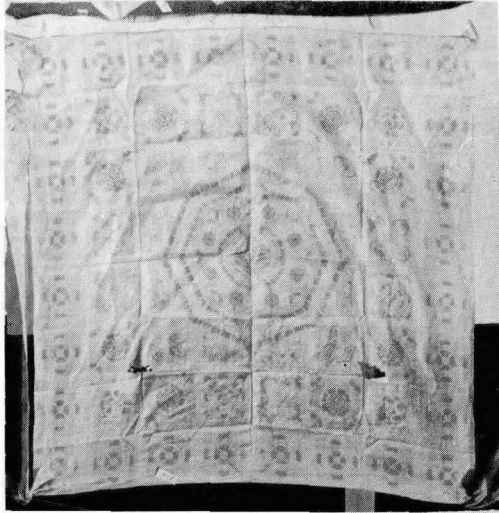


圖 12. 唐彩紋襪 五幅, 백색 삼베



圖 13. 唐彩紋襪 76×72cm,青色삼베
끈 너비 11cm, 길이 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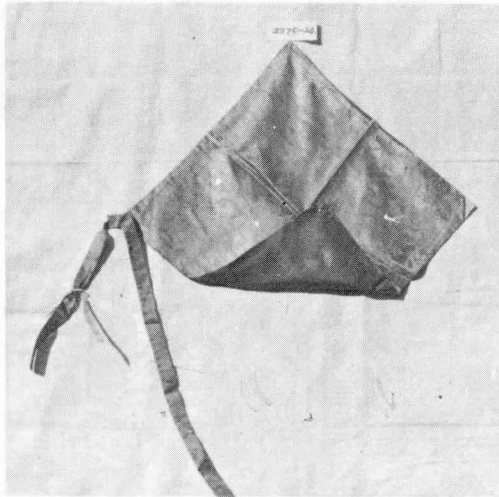


圖 14. 三作노리개襪 一幅, 걸감(紅色무늬비단)
끈(黃色明紬) 안감(黃色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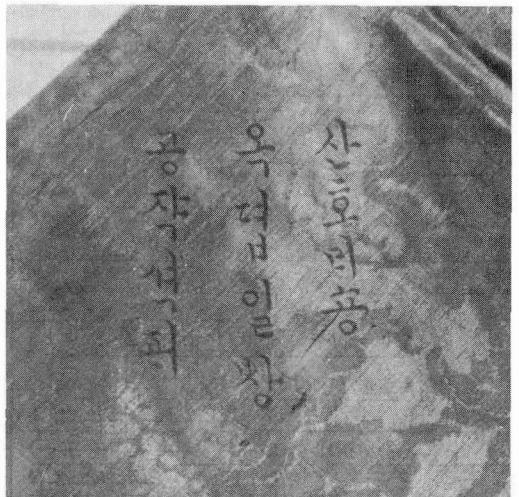


圖 15. 三作노리개襪 部分

다섯째,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 궁궐의 종류는 홀보(單襪), 겹보(袂襪), 솜보(襦襪), 누비襪, 油紙襪, 唐彩紋襪 등으로 구분된다.

여섯째, 궁궐은 일시에 多量 제작되어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사용되었다.

끝으로 襪全般에 걸친 폭 넓은 고찰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絲田刺繡研究長所)

즉 궁궐은 물품을 싸두는 일차적 기능과 더불어 격식을 갖추는 儀禮用으로 제작 사용되어 宮中 制度의 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궁궐의 재료인 천을 보면 주로 土産의 비단이 쓰여졌다. 이는 무명이 많이 사용된 民間用 襪과 대비된다.

셋째, 궁궐의 色相은 宮中 專用色인 紅色系統이 주로 사용되어 宮中用임을 표시했다. 이에 비해 民襪은 多色이 混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궁궐의 規格을 보면 一幅小襪에서 八幅大襪에 이르고 있는데 後期의 實物을 보면 廣幅의 직물이 생산되면서 在來의 幅개념과 다른 規格의 보자기가 보인다.